

유통업계도 '짜라시' 몰살

SNS 유포 폐해 심각

대부분 근거 없거나 사실 관계 확인 어려워

과거 은어(隱語)로만 사용되던 '짜라시'라는 단어는 지난 2014년 말 철와대 비선 실세 의혹 및 문건 유출 사건에서 여러 차례 등장하며 대중적인 단어로 부상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마저 "짜라시에 나오는 얘기들에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공식 석상에서 직접 이 단어를 입에 올리기도 했다.

최근엔 유통업계가 짜라시로 몰살을 앓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게 SNS를 통해 유포되는 '받은 글'로 시작되는 짜라시는 기업뿐 아니라 언론사, 기자, 홍보대행사에게까지 미치는 폐해가 심각해져 이제는 엄중까지 느끼게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하지만 개중에는 사실 관계 확인을 고려할 필요성을 느끼는 등 어느 정도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는 내용이 있다는 점이 짜라시가 근절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가장 최근의 짜라시는 유통그룹 A사의 '의료기기 사업 진입 소문'이다. 국내 대기업들의 의료기기 분야 진입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유통그룹 A사가 한 계열사의 사업목적에 '의료기기판매업'을 추가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 것인 내용이었다. 실제로 해당 기업에 문의한 결과 이같은 내

용은 일정 부분 사실인 것으로 판명됐다. 다만 의료 관련 전문 매체 등 몇몇 곳에서 과거 한차례 언급했던 내용이었으며, 아직 사업 구성조차 진행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단순 정보 이상의 가치는 부족했다.

이처럼 짜라시가 일부 사실에 근거해 추정된 내용도 있는 반면 거의 대부분이 근거와 실체가 박약한 루머에 불과하다는 점이 문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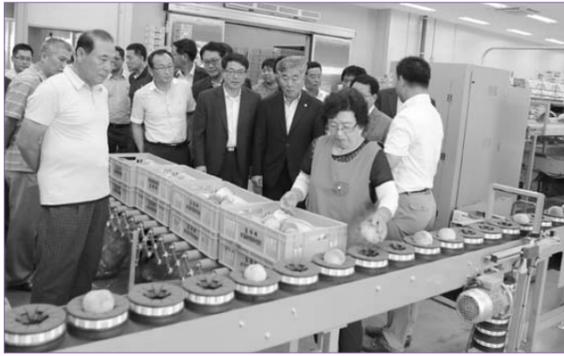
일례로 B유통그룹 총수 외아들이 계열사 C사에 들어가 인턴PD를 하게 되었는데, 세프장을 보면서 '저런 건 얼마면 지을 수 있습니까'라고 PD한테 물었다가 '넌 살면서 구경도 못할 돈이야'라는 말을 들으며 뒷수를 맞았고, 이 일로 PD가 잘렸다는 내용의 짜라시가 돌기도 했다. 이에 대해 B그룹 관계자는 "오너의 아들은 현재 다른 계열사에서 인턴이 아니라 대리로 근무하고 있다"면서 "계열사 C사에서는 근무한 적이 없다. 전혀 사실무근이고 허황된 소설"이라고 일축했다.

D그룹 홍보팀 관계자가 직접 업계 관련자 평판에 대한 짜라시를 작성 유포하다가 출처가 판명돼 물의를 빚은 경우도 있고, 경쟁 기업 관련 안좋은 내용을 친분이 있는 기자에게 메신저로 전한 것이 돌거나 곤혹을 치른 적도 있다.

지난 2014년엔 모 경제매체 여기자가 E사 홍보팀 여직원의 뒷수를 두 대 때리고 욕설을 퍼부었다는 짜라시가 기자들 사이에서 돌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여기자의 출신학교와 사진까지 돌았고 폭행 이유까지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었다. 짜라시가 유포되면서 사건이 커져 다른 매체에서 기사화됐고 이는 또 언론중재위원회에까지 회부되기도 했다. 또 같은 해엔 경쟁사 술에서 소독약 냄새가 난다는 악성 루머를 유포한 주류업체 직원이 적발돼 법정에 선 경우도 있었다.

최근엔 같은 회사 출신이나 동종 업계 사람들끼리 소통하는 익명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 앱에 나온 내용들이 짜라시 형태로 SNS에 유포되는 경우도 많다. '블라인드'엔 내부 고발이라는 순기능도 있지만 익명이라는 맹점을 악용, 악의적인 내용을 허위로 올려 회사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경우도 찾아졌다.

업계 관계자는 "경쟁사의 사업 추진 동향이나 오너 일가의 행적에 관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근거가 전혀 없는 내용이나 실체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이야기들이 SNS로 유포돼기에 거의 대부분 그냥 거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짜라시를 받을 때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짜라시들을 만드는가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뉴스



임실군은 26일 성수면에 위치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서 임실농산물 판매 활성화와 상호간 친목을 다지기 위한 '소통 한마당 행사'를 가졌다.

임실농산물 판매 활성화 '소통 한마당'

생산농가·유통업체·행정 한자리 모여

임실군은 26일 성수면에 위치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서 임실농산물 판매 활성화와 상호간 친목을 다지기 위한 '소통 한마당 행사'를 가졌다.

신광우 부군수를 비롯한 문영두 군의회의장, 최완 농협군지부장, 농가, 농협, 유통업체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농산물 생산농가와 대형 유통업체 바이어가 직접 만나 생산 및 유통정보 등을 상호 공유하며 지역 농산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함으로써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열렸다.

특히 이날 부산에 소재한 (주)동부청과(대표 이장희)는 임실군·

임실군조합공동사업법인과 농산물 출하협약(MOU)을 체결했으며, 이는 지난해 전남·제주권에 이어 올해 부산·경남권까지 유통망을 확대하는 임실 농산물이 명실상부한 전국구 농산물로 발돋움 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임실군 농산물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판매촉진에 기여한 (주)이마트 김수광 팀장에게 군수 공로패를 전달했으며, 참석자들은 APC시설을 둘러보며 직접 선별체험에 나서고, 전시장에서는 다양한 품목의 임실 농산물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순창·장수, 동서 만남의 광장서 지역 농·특산물 판매

전북 남원, 순창, 장수 등 3개 지자체가 광주·대구 고속도로 '동서 만남의 광장'에서 지역 농특산물 판매에 나선다.

한국도로공사 전북지사에 따르면 27일 개장된 함양(산삼골)동서 만남의 광장에서 동서화합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농특산물 판매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

이번 직거래장터에서는 거창, 고령, 함양, 합천, 담양, 남원, 순창, 장수 등 호영남 8개 시군 지자체가 참여한다.

주말마다 운영되는 이번 장터는 함양·장수, 고령·남원, 함양·담양, 거창·순창 등 호영남 지자체를 매칭했다.

농특산물은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다양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광영 기자

전북중기청, 내일 '벤처포럼'

전북지방중소기업청은 28일 오후 5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제12회 전북벤처포럼'을 개최한다.

'전북벤처포럼'은 2014년 8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간 네트워크 활성화, 최신정보동향 공유, 멘토링을 통한 엔젤투자 연계 등을 위해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도내 유망창업기업 4개기업을 대상으로 모의 크라우드 펀딩 투자대회를 개최, 창업 초기기업의 새로운 투자 대안인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모의 크라우드 펀딩대회 1위 업체는 100만원의 크라우드 등록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전북중기청 정일택 청장은 "최신 정보공유를 통해 창업 초기 기업과 예비 창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

JB금융, LACP Annual Report '동상'

JB금융그룹은 세계적인 마케팅 조사 기관인 LACP가 주최한 '2015 Vision Awards of the Annual Report' 부문에서 동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LACP Vision Awards는 IR 자료의 아카데미로 불리고 있으며, LACP는 매년 포춘지 500위 기업들을 포함한 세계 유수의 기업, 교육기관, 자치단체, 비영리단체의 Annual Report의 경쟁력을 조사·발표하고 있다.

JB금융주주 관계자는 "전세계 1,000여개 금융기관, 글로벌 기업 등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벌여 8개 평가분야에서 총점96점(100점 만점)을 획득하여 이 같은 영예를 얻었다"며 "견실한 성장과 경영혁신을 통해 세계 속으로 도약하는 기업을 집약해 나타내고 있어 대내외적인 홍보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간편 보양식으로 안동찜닭 어때요

하림, 여름철 입맛 살릴 '안동식 찜닭' 출시

닭고기 전문기업 (주)하림(대표이사 이문용)이 "가장 간편식(HMR) 시장 공략을 위해 지역별미를 집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안동식 찜닭'을 27일부터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지난 봄 출시된 하림의 지역별미 시리즈 '춘천식 닭갈비'가 국내 최대 유통기업인 이마트에서 높은 판매고를 올리며 인기를 얻은 데 힘입어 두 번째로 선보이는 것.

하림 '안동식 찜닭'은 국내산 닭고기의 담백한 맛에 견고추의 칼칼함과 양념소스의 달콤함, 당면의 감칠맛이 더해져 조화로운 맛이 일

품이다. 특히 밀간으로 닭의 잡내를 제거해 깔끔한 맛을 자랑한다. 가정은 물론 야외에서도 간편 조리 가능하도록 직접 개발한 양념소스와 당면이 동봉되어 냄비에 넣고 익히기만 하면 된다. 기호에 따라 감자, 당근, 양파 등 각종 채소를 추가하면 깊고 풍부한 맛을 즐길 수 있다.

신제품은 전국 이마트 매장에서 판매된다. 가격은 8천원대.

하림 마케팅팀 정충선 차장은 "무더운 여름이라 식욕이 떨어지는 데다 요리하기도 귀찮고 힘들다는 점을 고려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지역별미 안동찜닭을 집에서



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제품을 기획했다"며 "색다른 보양식으로 잃어버린 입맛도 되찾고 기력도 보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전북경진원, 도내 중기 수출 촉진 박차

내달 22일 상담회 개최

해외 바이어 20개사 초청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도내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오는 9월 22일 수출 상담회를 개최한다.

상담회는 가공식품, 생활소비재 등이 대상이며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해외 유력 바이어 20개사를 초청 진행된다.

이어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중국, 미얀마, 베트남 등 수출 유망시장에 대한 마케팅도 강화한다.

중국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현지 유통망 연계 우수 상품전, 현지 바이어와의 구매 상담회 등 총 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청년 무역상 육성, 온라인 상거래 지원(B2B)부터 해외 역직구 지원(B2C)까지 수출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청년 글로벌 무역상 육성사업은 해외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제품의 수출 확대와 2~30대 청년의 일할 기회를 확보한다는 게 목표다.

현재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협업을 맺고 있다.

비관세장벽 등 FTA컨설팅도 강화한다.

사무실에서 고객을 기다리는 방식을 탈피, 현장을 찾아 발로 뛰는 현장지원을 강화하고 관세사, 원산지관리사 등 FTA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으로 내국 기업들의 FTA 활용 수출 수요를 창출할 예정이다.

/신광영 기자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행복을 꽃피우는 금융생활의 따뜻한 동반자

기다리던 봄, 실렘 가득한 마음 곳곳에 행복이 전해지도록 전북은행이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공익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위한 나눔 실천

서민지원
저소득층 가정 및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학술/교육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체육중진
문화단체 및 지역민의 다양한 체육행사 지원

환경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보호 활동

